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보호종료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

도교육청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개소

전북도·삼성전자 등 4개 기관 민·관 협업 연간 340여명 지원



10일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는 전북 도내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도와 함께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북도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등 4개 기관이 손을 잡고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전북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최윤호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세움벨리피아 오피스텔에서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 '희망디딤돌' 자립 통합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맞춤형 상담과 교육 등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50억원 지정기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굿

네이버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올해 1월부터 장소 선정 등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문을 연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는 생활실 22실, 체험실 4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센터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1대1 맞춤 관리를 제공하는 '자립생활', ▲보호가 종료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고 진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

하는 '자립준비', ▲자립을 미리 경험해보는 '자립체험' 사업을 진행해 연간 약 340명의 보호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최근 정부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 전담체계 구축, ▲소득·주거안정 강화, ▲자립교육 확대, ▲심리정서 지원 확대, ▲제도적 기반 내실화 등 6대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내놓은 시점과

맞닿춰 더욱 의미가 크다. 송하진 도지사는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통해 자립 준비 청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청년으로 커나갈 기회를 대하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북도는 길을 맞춰 걸겠다"며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만들어 준 삼성전자와 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4단계는 '부분 또는 전면등교' 방역 철저 하 수업일 최대 확보

유치원·초등 1~2학년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관계없이 등교수업 가능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 시기 학교별 개학 시점부터

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지원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 4단계는 '부분 또는 전면 등교'다. 4단계시 초등 3~6학년은 4/3 이내, 중 3/2이내, 고 3/2이내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보해 4단계까지 전면등교를 가능하게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인 학교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음·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다. 다만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는 제외된다. 한편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 시,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 전면등교 가능학교수(비율)는 유·초·중·고, 특수 전체 학교수 1,255개교 중 1,189개교(약 94.7%)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초·중·고 2학기 전면등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기초학력 보장, 학습격차 해소 등을 위해 3단계까지 전면등교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에 관계없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확대를 위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수능 D-100일

'자신만의 공부 리듬 유지하라'

도교육청, 수능 대비 전략 제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과 교과전형의 확대,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형 수능 체제로의 개편, 진로선택과목 성취도평가 반영 등으로 대입 변화가 어느 해보다 크다.

또한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원격수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고3 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입시 환경을 경험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대입전형의 변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집중해야 할 것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먼저, 수능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를 꼽았다. 아무래도 수시 지원율이 높아지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2학기 때까지 꾸준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공부 리듬을 잃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고3이라 할지라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거론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찰,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에 대해 고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부족한 전북 지역에서 다양한 학과에 대해 미리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입정보포털 언더가(<http://www.uga.kr>)의 '진로정보'와 '학과정보'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 고3이라 할지라도 진로 고민은 계속해야 국어·수학영역서 도입 공통+선택과목 구조 과목 성적산출 이해·준비를 소재·개념에 대한 이해 변형 출제 문항 대비도 탐구영역의 경우 고득점 유리한 과목 선택 고려 학습

이다. 고위험군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에 신경쓰도록 자칫 건강상의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해야 함을 강조했다. 수능 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9월 수능 모의평가 등의 시험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 수능처럼 아르헨티나 가림막은 사용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가림막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지난해처럼 수능시험실이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수능에 대한 학습법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첫째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통+선택과목' 구조의 과목의 성적산출 이해 및 준비가 중요하다. 공통과목 전수가 선택과목 전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택과목에만 집중하기보다 공통과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둘째 BBS 연계율 및 연계율 변경에 따라 단편적 문제 풀이식 하

습보다 소재나 개념, 원리 등에 대한 이해로 변형된 출제 문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줄어든 BBS 연계율에 대비해(50%) 비연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및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의고사 등을 통한 실전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셋째 탐구영역 구분 폐지로 과목에 대한 개인 선택폭이 자유로워 최저등급 충족 및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선택을 고려해 학습을 해야 한다. 또한 정시 지원 시 필요한 대학별·학교별 선택과목 유형 확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서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자신에게 경쟁력이 있는 전형요소와 대학별 모집단위를 찾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의 전형방법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작년에 정시 미충족이 어느 해보다 많았던 만큼 올해도 수험생에 따라 정시까지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진학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북 진로지화센터 홈페이지(<https://www.jbc.gak.kr/jiro>)'의 '대입정보'를 적극 검색해 보는 것도 좋다. 각 대학의 입시동영상과 진학정보가 체계적으로 탑재돼 있으며 '전북 꿈사다리 TV'를 통해 맞춤형 온라인 진학 동영상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고3이 꼭 알아야 할 수시지원전략'이라는 특집 동영상을 제작해 우리 지역 고3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시지원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상담밴드인 '전북 꿈사다리 진학상담밴드'에도 질문을 올리면 바로바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선택형 수능을 고려한 학습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